

# 학사제도 개편 공개토론회

## 오는 28일 다향관 세미나실 ... 첫 논의의 장 될 것

학사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측이 학사제도와 관련해 공개 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학사지원실을 비롯한 3개 행정부서의 담당자와 총학생회 학사지원위원장을 포함한 단과대 학생회장 3~4명이 참석해 △학부제 △학점포기제 △절대평가제 △교양강화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측은 이날 일부 단과대 학과제 변경에 대한 입장과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진행한 '좋은 수업 만들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4) 학사지원위원장은 "학사제도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운영실 황의돈 과장은 "다음에 교양교육과정 개편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학교관계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사제도와 교양강화에 대해 타대학과 비교 설명한 후 이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가 일부 학과제 변경으로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만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토론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학교, 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취업박람회·동문초청특강 등 실질적 프로그램 마련시급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각 대학들은 취업설명회, 특강을 기본으로 △학원비 지원 △IT교육 △온라인 영어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교 취업지원팀의 희망자에게 취업정보를 메일로 보내고 제출된 취업카드를 전산 작업해 기업체의 추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천하고 있다. 또한 참가할 인증제와 다음해부터 실시되는 동국 캐리어 엘리트 프로그램은 취업 시 다른 학생과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준호 취업지원팀장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지원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형(토목4) 졸업위원장은 "취업지원팀이 주체가 돼 진행되는 행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채용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은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인증제는 일부 소수를 위한 것이라 지적이다.

반면 연세대의 경우 1년에 2달간 기업체 180~200여 개가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열어 채용담당자와 재학생간의 1:1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경상대는 취업면접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은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지연(경영4)양은 "면접요령·이력서 작성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취업지원팀은 지난해 '직업탐구' 강좌를 개설했지만 외부 강사의 강의가 중복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저조해 폐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강좌는 폐강됐지만 특강·온라인 상으로 꾸준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학생은 "단과대 별로 취업 설명회가 열려 관련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취업지원팀에 제출된 취업카드는 8월 졸업예정자 중 30여명에 불과하며 모의면접실 이용도 저조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이 한 관계자는 "기업체로부터 추천 부탁을 받아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취업률이 대학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소가 되는 만큼 각 대학의 취업지원에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가 높은 만큼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여름학기 봉사단원 모집

## 사회복지기관 등 200곳

참사람봉사단(단장=이관제·통계학)이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여름학기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사회봉사 단원은 육속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200여개 기관 중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단원 중 활동기간 내에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 사회봉사학점 1학점이 인정된다.

여름학기 봉사단원은 다음달 21일 한사관 마름과 향림원에서 예비교육을 받은 후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 온라인 강의평가 실시

## 무응답시 성적조회 불가

온라인 강의평가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이번학기 개설된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평가는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강좌를 선택하면 된다.

수강 강좌의 절반 이상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공시 조회의 제한을 받게 되며, 한 강좌 평가에 일주일 5회 이상 답변할 경우 응답은 무효처리 된다.

# 해외탐방장학생 접수마감

## 경쟁률 2대 1 기록

해외탐방장학생 모집 결과 총 38팀이 신청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서울·경주캠퍼스 150여개 팀이 신청한 것에 비해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중국과 홍콩 지역은 신청자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사스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지난해에 비해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되며 결과는 다음달 4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샘휴스턴대 국제교류처장

## 오는 27일 학술강연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샘휴스턴 주립대학의 Dr. Jurg Gerber 국제교류처장이 오는 27일 학술강연을 갖는다.

'러시아에서의 조직범죄'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오전 10시부터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실 한 관계자는 "학술강연 뿐만 아니라 향후 양 대학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호 1학기 수시모집 LST형형 중 생물학과 법학과로, 2차전공 배정 인원을 해당 학교 정원의 150%에서 130%로 조정했다.



'대동' 커피 ...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찾기 위한 전통문화가 지난 21일 불상 앞에서 진행했다. 대동제의 한 행사로 진행된 이번 혼례는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아 예전 우리 나라의 혼인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동국학원 이사회 개최

## 불교병원 정관 개정·결산심의 등 논의 예정

제192회 동국학원 이사회가 내일(27일) 오전 10시 30분 교무위원회 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2학년도 결산 △불교병원 직제 정관에 포함하는 개정안 △불교병원 추가공사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불교병원 직제개정이 통과될 경우 병원장 선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해 12월 사퇴한 권노갑(경제53졸) 전 총동창회장의 이사회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 '학과실 꾸미기 대회' 시상

## 경쟁과 1위 ... 대동제 폐막식서 수상식 진행

본사와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 공동 주최로 진행된 과·학부 학생회실 꾸미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22일 대동제 폐막식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학과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총 16개 과·학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

으며 △1등=경찰행정학과 △2등=산업시스템공학부 △3등=중어중문학과가 각각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를 맡은 유영빈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생회실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문화태미)

# 축구부, 전국대회 출전

## 다음달 1일 명지대와 첫 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제4회 전국대학 축구대회에 출전한다.

본교는 △홍익대 △명지대 △호남대와 함께 6조에 편성됐으며, 첫 경기는 명지대와 다음달 1일 오후 2시 30분 공설운동장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는 고려대를 비롯한 46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은 총 12조의 조별리그로 치뤄지고 각 조의 상위 2팀이 결선에 올라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한편 오는 2일 개막 예정인 제40회 전국대학 농구연맹전 1차대회가 협회사정으로 인해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 보리소

## 평상심을 갖자

"불법(佛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을 유지해 특별한 일을 없게 함이다.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비웃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알 것이다. 누구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주인공이 된다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모두가 진실한 것이다."

불가(佛家)의 대표적 선어록 중 하나인 '임제록'에 나오는 말이다. 이 또한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또는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서로 통하는 말이다. 세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나이지만, 실천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화두이다.

개학이 었제였는가 싶더니 어느새 1학기가 다 가고 있다. 새 학기, 시작의 설렘이 아직은 짙 가지지 않은 듯싶은데 이젠 캠퍼스 축제도 막을 내렸다.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살다가 여름방학마저 그냥 흘러 보내야 하는지도 모를 시간순상을 막 지내고 있는 것이다.

5월 20일자 경향신문 18면에 실린 '숫자로 세상읽기'를 보았다. 대학생 1년간 학업일수가 방학과 축제 등을 빼고 나면 불과 5일밖에 안된다는 충격적인 모 대학 교수의 분석이 의미심장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전제한 그 교수의 셈법이 큰 울림으로 다가서는 것도 그 상징성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며, 교수는 교수다워야 자연스럽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일에 현혹되지 않고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제기능과 재역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곧 평상심을 실천하는 일이다. 진실된 삶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임제록'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새삼 '특별한 일을 없게 함이 곧 불법을 구하는 일'이라는 임제선사의 가르침이 새록새록하다.

하 춘 생  
주간불교신문사 편집부장

발전기금 060-700-0119

이력서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치열한 취업난 시대**  
동대신문사는 당신의 자랑스런 이름이 됩니다.

▲모집인원 :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원서접수 : 6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본사 총무부(학생회관 지하)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문의 : Tel. 2260-3491~2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6, 7면 대동제**

대학 축제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번 대동제를 평가한다. 또한 타대학의 이색적인 행사를 통해 본교 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4면 3보 1배 현장**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한 3보 1배' 현장을 찾아 보았다.

**5면 제1회 맑스코뮤날레**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 본다.

# 강의평가, 성적확인 위한 '통과의례' 불과

## 다양한 문항 개발·성숙한 참여의식 필요

온라인 강의 평가가 매 학기 전체 수강생 중 60~80%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지만 일률적인 문항과 학생들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성적 확인을 위해 거치는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2001년부터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 강의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수강생의 태도 등 6개 항목 22문항이다.

그러나 모든 강의에 대한 평가문항이 일률적이어서 강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무근(신문방송학) 교수는 "이론과 실습 강의가 똑같

은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만큼 객관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대학과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5개 항목을 추가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추가 문항을 게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학생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일렬로 답변해 학교측이 5문항 이상 같은 답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현진(국문3) 양은 "강의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무근(신문방송학) 교수는 "이론과 실습 강의가 똑같

현재 학사지원실은 평가 결과가 수합되면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교수 개인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 교수에 대해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교원업무평가에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형식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반면 타대학의 경우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양대는 평가 결과를 4단계로 나눠 교원업무평가에 차등반영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일정한 점수 이하를 받을 경우 그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로 정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고려대는 평가 항목을 △이

론 △실기 △팀티칭 등 6항목으로 분류해 강의에 맞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등 강의평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학기 중에도 강의평가를 실시해 강의 중반에 피드백하고 학기 말 다시 평가하는 등 강의 질 향상을 위해 강의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의평가는 강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근거가 되고 있다. 강의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숙한 참여의식과 다양한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회전무대

## 동국의 비애(!?)

O...중앙도서관 감시카메라에 비상이 걸렸다는데.

이유인즉 중앙도서관을 신관으로 옮긴 후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소지품 도난사건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라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건이 발생해 소지품을 보관할 곳이 없는 학생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특별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자에게 양심은 없다."

## 소리의 비밀

O...정보문화관 P동 강의실 몇몇 의자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빽~' 소리가 난다는데.

알아보니 의자 밑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주저앉아 땅에 깔려 내는 소음인 것이라고.

이는 교수와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정보문화관에 도입된 새로운 집중력 약화 시스템, chair 스케어"

## 괜한 욕심

O...축제기간에 진행된 '6.15 김밥말이' 대회가 용두사미(!?)의 모습 이었다는데.

알아보니 접수당시 예상보다 많은 팀이 신청해 3팀을 제외시켰으나 행사 당일에는 4팀만 참가했기 때문이라고.

사전에 불참통보를 해 다른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았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개최된 행사에서 나타난 일부 학생의 약속 불이행."

## 주차체험 극과극

O...대동제 기간 동안 지상과 지하 주차장은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유인즉 각종 행사진행으로 주차공간이 좁아지자 주차금지 구역까지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난 반면, 지하 주차장은 그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몇몇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좁은 통행 길을 이용해 야만 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대동제의 새로운 행사, 자동차 미로게임(!?)"

## 생협 독립법인 출범 지연

# 대의원 총회 연기 등 부작용 예산심의·상반기 사업계획 확정 늦춰져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산업학, 이하 생협)의 독립법인 출범이 지연돼 상반기 사업이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은 지난해 11월 독립법인 출범을 계획하고 이에 맞춰 총회를 개최한다는 기본 입장을 세웠다. 그러나 독립법인 출범지연으로 총회가 열리지 않아 △사업계획 확정 △예산 심의 △조합원 자율가입제 모집 등이 논의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표류되고 있다.

이처럼 독립법인 출범이 지연된 데는 학교측과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학교측은 생협을 초 총장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총장의 업무 과다로 독립법인 안건이 우선순위의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4월 학교측에 독립법인 출범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협이사장도 올해 초 새로 부임해 인수인계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 남은 생협 독립법인 추진과제는 △재단·학교측의 동의 △회계·급여규정 개정 △총회에 새 새로운 정관·규약·규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덕기 생협이사장은 "독립법인에 대한 논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 학교측에 독립법인 추진 안건을 상정해 본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생협은 오는 6월 초 이사회를 개최해 총회 시기와 기존 생협을 해산한 후 새로운 정관에 의한 발기위원회의 발족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생협은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출자해 구성된 기구다. 생협이 학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독립법인 추진으로 다른 사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중도, 임시열람실 마련

## 지하 3·4층 총 300석 ... 시험기간만 개방

시험 기간동안 발생하는 열람석 부족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지하 3, 4층에 4인용 책상 75개를 설치해 총 300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하 3, 4층은 기계실과 인접해 소음 때문에 개방하지 않았으나 구 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험기간에만 임시 개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도의 한 관계자는

"임시열람실 개방으로 열람석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낙산학사 이용 신청**  
**다음달 12일부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이 다음 달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낙산학사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속소는 20인실 5실과 7인실 6실로 3차 4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방될 예정이다.

## 2학기 복수전공 신청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

2003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신청이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과 2003학년도 2학기 1차 복학생으로, 선반인원은 입학년도 학과별 기준정원의 100%에서 200%까지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복학생의 경우 해당 교과과에서 할 수 있다.

2003학년도 입학생의 복수전공 신청은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수전공 포기신청이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교과과에서 실시되며, 복수전공을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가능하다.

이 많이 상정된 만큼 대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적공시 다음달 19일부터 E-mail통해 성적표 수취 가능

2003학년도 1학기 성적공시와 정정이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성적 확인은 공시기간에만 가능하며 성적표와 이메일성적표는 오는 7월 7일 발송될 예정이다.

이메일을 통해 성적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주소지변경'에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담당 교수별로 성적정정이 가능한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관심에 맞서 ...** K교수 성추행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대위가 지난 19일부터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초 학교측에 K교수 수업배정 반대 등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답변이 없어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웹텔 15대 설치

공공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검색·이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Webtel이 학내에 추가설치됐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료로 이용되고 있는 Webtel 4대도 조만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내 전화 3분과 교내 전화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보관리실(실장=이효용·기계공학)은 지난 주 15대의 Webtel을 △상록원 1층 △동국관 △문화관 등 총 11곳에 추가로 설치했으며

## 고시 1차 합격생 장학금 신청 재학생·졸업생 가능

계산고시학사가 행정·사법·언론 고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장학금은 고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재학생은 2학기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졸업생은 수험보조비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30일까지 △합격확인서 △재학(졸업)증명서 △거래은행계좌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대의원 총회 개최

**사업계획 보고·회칙개정 등**

대의원총회가 내일(27일) 오후 5시 30분 원흥관 103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35대 총대의원회 활동 및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 △총학생회·총대의원회칙 개정 △학생회비 분배·인출 승인 △학생회비 인상안 △한총련 합법화 관련한 성명서 작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수욱 총대의원회 의장은 "회칙 개정과 학생회비 인상안 논의 등 중요한 안건

# 2003학년도 1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 1. 성적공시 및 정정 기한 : 2003. 6. 19(목) ~ 27(금), 17시까지**
- 2. 성적 공시 : 6. 19(목) ~**  
※ 6. 16(월)~18(수)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처리 후 바로 공시됨.
- 3. 성적 정정 :**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정정 가능 기간은 교·강사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성적공시 및 정정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 4. 성적표 및 E-mail 성적 발송 : 7. 7(월) 예정**  
※ **E-mail 등록 및 주소 확인**  
: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주소지변경에서 E-mail 등록 및 주소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E-mail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개인성적을 발송함.)

# 2003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시행

- 1.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2003. 6. 16(월)~18(수), 8. 25(월)~27(수)  
나. 휴학 대상자 : 가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지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재됨.
- 2. 복학**  
가. 접수일자 : 2003. 6. 9(월)-11(수), 8. 18(월)-20(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3년 9월달이 전 전역예정자**.  
다. 2003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중 전공 미결정자는 소속대학 교과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재입학**  
가. 접수일자 : 2003. 6. 9(월)~11(수), 8. 18(월)~20(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회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 2003. 6. 16(월)~18(수), 8. 25(월)~27(수)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고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되며, 재입학 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함을 유의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으로 상담 바랍니다.**

# 2003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시행

- 1. 신청대상**  
가. 2003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나,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학 2002학년도 1차 전공 배정자 중 전공변경 희망자
- 2. 일정**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2학년 재학생 : 2003. 5. 26(월) ~ 5. 30(금)  
-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3. 6. 9(월) - 6. 11(수) (1차 복학시기)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3. 8. 18(월) - 8. 20(수) (2차 복학시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2학년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3. 8. 8(금) 한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3. 8. 29(금) 한
- 3. 배정기준**  
가.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열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결재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 2학기 이수자(조기복학자)  
-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율점에 미달하는 자  
1학년 수료율점(2002학번 기준) : 35회적 (단, 불교대, 경영대, 사회과학대는 30회적)
- 4.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부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3. 배정기준 참조)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2003학년도 2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 (재학생+1차 복학자)의 cut-line 보다 높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 5.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된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다. 제1,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6.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2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 홈페이지)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 소속 대학 교과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에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결과는 충격적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만 안겨주었다. 평소 강조해 왔던 "당당한 외교"나 "대등한 한미관계"는 고사하고, 미국의 비위나 맞추는 친미사대적인 발언과 민족의 이익과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대미골육외교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논단

이철기  
경주캠 국제관계학과 교수

# 또 한번의 굴욕적 외교

스스로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의 내용은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실제로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차라리 미국 가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오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의도가 숨어 있다. 미국은 작년 고이즈미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되던 북일수교협상에 크게 놀란바 있다. 일본을 다자회담들에 끌어들이고 북일수교를 북한핵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제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또한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교류를 북한핵문제와 연계시키는 데 성공하여, 남북관계마저 미국의 속도조절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역할과 발언권을 축소하고 스스로 손발을 묶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93.4년의 북한핵사태 당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북강경론만을 고수하다가 결국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핵협상에서 아무런 역할

도 하지 못한채 미국에 끌려다니다가 경수로 비용만 부담했다.

북한핵문제에 풀리지 않는 것은 미국의 비타협적인 자세 때문이다.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협상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거부해 왔다. 북한이 이른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한 지난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비타협적 자세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비타협적인 입장이 그대로 들어 있고, 한국은 여기에 동의해 주었다.

공동성명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과거핵"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핵을 무조건 제거하고 이를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적

어도 수년이상이 소요될 일을 완료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다시 한반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핵보유 시인 발언으로 북한의 핵보유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북한위협론'을 앞세워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상황을 질질 끌고 가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또 한미관계를 여전히 굴종과 불평등과 주종관계의 틀에 묶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 앞 못보는 '자화자찬'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부시에게 코드를 맞추고 온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정부의 외교안보책임자들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공동성명의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를 유보하기로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틈서비스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추가적 조치"에 동의함으로써, 군사적 방법을 비롯해 미국의 강경입장에 동조하고 이를 사실상 승인하고 말았다.

## 미국주도 승인한 꼴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5자회담 틀에 동의해 줌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주도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북일관계의 진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학생회 민주화’로 위기 극복해야”

## 상설체 건설에 대한 입장은 엇갈려

최근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총련과 연대회의가 오는 30일 진행될 5월 축전에서 상설적 공동투쟁체(가칭, 이하 상설체)를 발족하기로 한 데에 탄력을 받은 것이다.

상설체는 지난해 말 여러 학생운동 단체를 하나로 묶는 한총련의 '새 조직' 건설제안에 대해 그 과도적 단계로 제시되어 새로운 학생운동의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대 두레문화관에서 열린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주목할 만하다. 연대회의 주창미(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의장, 서총련 박재익(고려대 총학생회장) 의장, 전학협 최지선(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의장, 비권학생연대 신진수(한양대 총학생회장) 의장, 서울대 민노당 학생위원회 김백선 위 의장, 서울대 박경렬 총학생회장 등 각 단체의 새 대표가 나름대로 조직정비를 한 후에 나선 첫 번째 논의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비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물론이다.

▲학생운동의 위기 분석 및 대안 = 지금의 학생운동이 '학생'과 괴리된 이유로 학생들의 변화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는 데 주저하는 참가자는 없었다. 학생회가 민주적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경렬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대의체계의 외 사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회치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학협, 비권연대 등이 다양한 정치적 주장의 '조정' 기능을 강조한 반면 한총련, 연대회의에서는 여론의 흐름과 정치활동을 주도하는 '선도'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운동의 화두를 놓고, 신진수 비권연대 의장의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문제설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과 연대회의의 주창미 의장의 "민중지향 특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학생회가 그동안 지녀왔던 학생운동의 선도성, 즉 먼저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민주화를 위한 개편·청산 '대상'인지 여부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상설체 건설에 대한 입장 = 새로운 학생운동 방향에 대한 각 단체간의 이견은 상설체 건설에 대한 입장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박재익 서총련 의장은 상설체 건설에 대해 "그동안 학생운동단체간 소모적 논쟁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공동 지향점을 둔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주창미 의장은 한국사회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동과제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학협, 비권연대 등은 '지향점' 자체가 설정되



지난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모습.

어 있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표정이다. 게다가 이들은 학생운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단체간의 분화가 아니므로 단체내 논의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학협 최지선 의장은 "차라리 학생운동과 학생간 괴리를 풀기 위한 학생회간 연대체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설체가 지향점 설정부터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결국 상설체에 대한 각 단체의 이같은 입장차이 또한 전학협, 비권연대가 운동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총련, 연대회의가 '선도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송윤경 기자  
isu@dongguk.edu

## 사설

# 공개토론, 제대로 해보자

학교와 총학생회가 오는 28일 '학사제도 공개토론회'를 연다. 35대 총학생회가 당선 초부터 추진해 온 '좋은수업만들기'를 위해, 총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대학의 본질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이번 토론회는 분명 의미 있는 과정인 동시에 '당연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 가능한 '공개'적인 논의의 자리이기에 더욱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토론회의 안건은 △모집단위 변경과 관련한 학부제 문제 △학점포기제 △절대평가제 △교양강화 개편 등으로 그동안 학내구성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단과대 모집단위의 학과제 전환을 결정한 2004학년도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는 학내 구성원 대부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부제의 폐단을 절실히 느껴왔던 만큼 새로운 변화의 방식과 과정, 이를 위한 논의의 절차와 방향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지 여론면을 통해 학부(과)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학내 구성원들의 지상논쟁도 그런 과정 중 하나인 셈이다.

더욱이 2004년은 표준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모집단위 전환에 따라 변경·개선해야 할 학사제도와 기타 사항들 역시 생겨나게 되므로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공개토론회를 내실 있게 잘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본다. 공개토론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국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측과 총학생회만의 논의자리가 아닌 공개된 토론회로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일반 학생들을 포함한 동국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 공개토론회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실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덧붙여 이번 공개토론회를 초석으로 삼아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좋은 수업'과 '교육의 질'을 제대로 만들고,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부주장 구분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88 팩스 (054)770-2067

## 기고

# 아직 '진정한' 학부제는 없었다

## 기초학문의 기본교양화 · 전공간 유기성 강화 필요

극심한 전공 '솔림' 현상, 전반적인 학력 저하, 기초학문의 위축, 전공분야별 교수간의 불협화음. 준비 없이 시행하기 시작한 학부제가 대학사회에 남은 부작용이다. 이제는 학부제 자체를 전면 철폐하고 학과제로 복귀하지는 주장이 커질 정도다.

학부제 시행과 더불어 실제로 바뀐 것이 무엇인가.

첫째, 병치된 학과들을 묶어 명칭만 부여한 교육구조 조직표 상의 '학부'가 생겨났다. 둘째, 학생 모집단위가 이에 맞춰 학과에서 학부(또는 계열)로 바뀌어 이주 커졌다. 셋째, (대학에 따라) 졸업 이수학점 수의 하향 조정, 전공학점 최소화, 복수전공제, 교수업적 평가 등이 제도적으로 뒤따랐다. 그런데 이런 교무행정적 조치만으로 학부제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의 '학부'라면 전공의 경직된 경계를 뛰어넘어 인문학과의 복합적, 연계적,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이에 앞서 전공과 상관없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즉 교양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선진 대학을 들여다보아도 대체 '전문직업학교'가 아닌 대학에선 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학과제와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교육을 담아낼 '실질적 교육단위로서의 학부'를 건설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앞서 말한 학부제의 부작용들은 모두 교육내용, 학업여건은 그대로 둔 채 명목만의 학부제를 실시한 결과 빚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시 학과제로 복귀할 것인가. 그리하여, 교양생들의 불가피하면서도 무분별한 전공선택을 담보로 전공학문의 대학 내 존립을 도모할 것인가.

직업적 전망도 흥미도 없는 전공을 4년 내내 공부하게 하는 교육적 무책임과 교육적 낭비를 이전처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소위 지식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외면한 채 전공의 칸막이 안에서 '나만의' 연구에 안주할 것인가.

이른바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은 대학사회와 무관한 것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극소수의 연구중심, 대학원 중심 대학

을 제외하고는 이런 물음들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업적 관점에서 인기 없는 기초학문이 기본 교양교육을 담당해 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그 첫째 방책이다. 전공교육보다도 기본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지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길이다.

그렇게 해야 기초학문 분야에서도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가능하고, 응용학문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용한 기초실력 배양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법학, 경영학, 의학 같은 지식소비적 학문이 철학, 문학, 수학, 물리학 같은 지식생산적 학문을 능가해 버리면 대학은 학문적으로 전망을 잃는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이와 병행해 전공의 경직된 경계를 뛰어넘어 인문학과의 복합적, 연계적,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커리큘럼을 재정비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도 사회 속에 있다. 대학에도 사회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은 또한 사회상을 선도해야 한다. 대학의 본래 사명은 여기에 있다.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동약로

주객전도



“4학년 선배라서 그런지 어려운 질문에 대답도 잘하네.”
“우리가 저런 3, 4학년 선배들보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1학년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몇몇 새내기들은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는 4학년 선배를 보고 불안해 한다.

자신보다 심화 학습한 3, 4학년들에 밀려 성적이 안 좋게 나올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1학년 전공수업은 50여 강좌가 개설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1학년보다 고학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개설한 강좌인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한 1학년 전공강좌의 경우 총 인원 42명 중 6명만이 1학년일 정도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새내기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전공수업은 1, 2학년과 3, 4학년을 분리해 평가하는 차등평가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학과 수업을 담당하는 어느 강사는 “이전까지 학년 구분 없이 평가했더니 학년간 성적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업내용이 고학년 수준에 맞춰질 때가 많아 1학년이 수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몇몇 선배들은 친분이 있는 새내기들에게 전공수업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결국 1학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공수업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전공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고학년들이 1학년 수업을 수강하는 데도 이유는 있다. 일부 고학년들은 재수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택하지만 학점 따는 데 부담이 없어 수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학년 전공수업의 대상은 분명 새내기들이다. 몇몇 고학년들에 의해 신입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학점 경쟁에 이용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3보 1배 현장

3보 1배가 가르쳐 준 생명·화합의 의미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3보1배’가 오늘로 60일째를 맞았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4개 종교지도자들이 종파를 넘어서 ‘생명’이라는 화두 아래 고행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다. 3보1배가 단순히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지난23일 본교 일안스님(불교대1)과 함께 3보1배단을 찾았다.
편집자

스님은 아스팔트에 이마를 대어본다. 세 걸음 걷고 엎드리고 다시 걷고 엎드리고... 바닥에 번져 있는 여러 개의 물방울 자국은 앞서 지나간 스님들의, 신부님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거나 땀방울이었지, 곧 스님의 이마에서도 똑똑하고 땀방울이 떨어진다.

일안스님(불교대1). 본교 신입생 스님 즉 새내기 대학생 스님이다. 스님이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3보 1배’단에 동참하기로 했던 지난 23일 아침 그를 따라나섰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이 전북 부안에서 3보 1배를 시작한 지 57일째, 수경스님이 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후 3보 1배를 재개한 날이었다.

오전 9시 30분. 3보 1배가 시작되고 주위가 속연해진 가운데 병원 응급차 한 대가 3보 1배단 앞편에 멈추었다. 수경스님이 어느 청년의 팔 안에 안기어 휠체어에 앉았다. 그리고 침묵. 문규현 신부님은 수경스님을 팔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환경운동연합의 문영배 씨는 수경스님이 쓰러진 날 문규현 신부님이 ‘수경스님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전한 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이미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2001년부터 3보 1배를 여러 차례 함께 하였던 ‘동반자’였던 것이다.

근육세포가 녹아가고, 실명위기에까지 처쳐왔지만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아스팔트 위로 돌아온 수경스님. 그는 이미 갯벌 속 생명 뿐 아니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흔들여 깨우고’ 있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허구성

“새만금 갯벌이 흰하 내려다보이는 암자에서 살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무언가를 받았으니, 이제는 갯벌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3보 1배를 하던 일안스님이 휴식시간에 아스팔트에 앉아 이야기를 꺼낸다. “스님이면 누구나 하는 ‘절’로 보답할 기회가 있으니 좋다”며 웃는데 자동차 연기와 더위에 스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느껴진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매연과 소음이 더욱 심

해져서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다는 사람이 많았던 데 이해가 되네”

스님의 목소리가 지나가는 차 경적 소리에 섞였다. 새만금 갯벌도 지금쯤 소음에 흔들릴 터다. 간척사업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한창일 테니 말이다.

새만금 갯벌. 약 4천 헥타르에 이르는 갯벌을 방조제로 막아 1억여 만평의 농지를 조성하는 간척사업을 당시 전북지역주민들이 반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식량기지, 원예단지, 수산개발단지 건설 계획 등 눈부신 지역경제 발전의 장밋빛 미래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그대로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96년 시화호 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증폭됐던 것이다. 식량안보의 논리도, 새로운 갯벌과 생태계가 생긴다는 논리도 더는 먹히지 않았다.

쏟아 남아도는 상황인 데다가 갯벌의 모든 생명이 죽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갯벌이 생겨보았자 생명이 없는 ‘죽벌’ 정도라는 과학적 분석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가 2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수면 위에서 맴돌았다.

결국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신규상기확단을 구성해 간척사업을 ‘백지상태’에서 구상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재고의’를 높이 평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간척사업의 일부인 물막이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얼마 전에는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보 1배 집행팀이 서울 여의도에 가까이 갈수록 고민스러워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새만금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국회 앞 3보 1배까지 공식일정을 마친 후에는 4개 종교지도자들이 ‘단식’을 고려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다시 자신을 ‘희생’하는

고행의 길인 셈이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

“3월18일 전북에서 출발해 57일째만에 서울에 입성하였습니다”

갑잡이 역할을 하는 이의 서울입성 ‘선언’이 서울의 매캐한 공기를 갈랐다. 가장 먼저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서로 일사 안고 눈물을 흘렸고 김경일 대표(새만금 생명 살리는 원불교 사람들 대표)와 이희은 목사(기독교생명연대 사무처장)도 일제안었다.

3보 1배를 이끄는 종교지도자들은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인사를 함정으로 하고 거리낌 없이 ‘절’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했다. 수경스님이 일찍이 말씀한 대로 생명을 죽이는 탐·진·치(욕심, 분노, 어리석음)를 없애기 위해 모인 이들이기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법’이며 ‘진리’죠. 그리고 ‘생명’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없지 않겠어요” 새내기 대학생, 일안스님은 한 마디를 남기고 다시 3보 1배에 정진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나간 스님들의, 신부님의, 목사님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땀방울이 번진 자국 위에 곧 스님의 땀방울이 다시 포개지고 있었다.

송윤경 기자
itsuj@dongguk.edu



지난 23일 새만금간척사업 반대를 위한 3보 1배에 참여한 일안 스님.



한총련 합법화, 어디까지 왔나

일주일 동안의 한총련 합법화 뉴스를 종합해 씁니다. 편집자

합법화 논의 백지화 위기

김·경철 한총련 5.18시위 강경대응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커다란 고비를 맞았다. 지난 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진행된 한총련 시위로 인해 합법화 의지를 보여준 청와대, 법무부까지 한총련 문제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본래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미외교 내용을 비판하는 항의 서한을 평화적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과도하게 저지하는 바람에 충돌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입장을 막은 것으로 오해 받은 것이다.

김·경철은 즉시 강경대응에 들어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기각된 뒤 자료를 추가해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상태다. 게다가 강 법무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번 일로 인해 한총련 합법화 논의를 거론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총련 정재욱(연세대학교 03년 총학생회장)의장은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저항의식을 표출하다가 빚어진 돌발 상황이었을 뿐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대통령의 입장을 막으려던 것은 아니”라며 “5.18 관련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수배해제모임과 한총련 수배자 가족모임에서는 강 법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그 동안의 전향적인 입장을 버리지 말라”며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다.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5.18항쟁 23주년 기념 위원회는 강 법무와의 면담에서 “혈기로 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 등 각종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해 수배해제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5.18시위가 한총련 합법화의 결실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몇몇 언론들은 5.18 시위를 왜곡보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번 시위를 분석한 기사에서 “이번 기념식이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한총련의 안하무인적인 집단 행동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한총련의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당국은 이번 사태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시위라고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부풀렸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연세대 앞에서 진행된 ‘한총련 수배자 가족모임’의 천막농성과 촛불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30일에는 ‘청와대 소원지 전달 171 가족 걷기’를 개최하여 전국 171명의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자와 가족들이 두 번째 상봉모임을 할 예정이다.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시위는 국민의 정당한 표현수단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국민참여’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시위도 그러한 측면에서 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총련 합법화가 우리 사회 기본적 인권문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설>
syj45@dongguk.edu

2003학년도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학생 단기 학술문화연수 시행계획

1. 연수기간 및 인원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연수기간, 연수인원. Rows for 파견 (삿포로학원대학 주관) and 초청 (동국대학교 주관).

2. 연수내용 개요

- 가. 영어를 주된 사용언어로 하는 학생교류
나. 일정기간의 홈스테이(Homestay)를 통한 각국의 실생활 체험
다. 양 대학의 정규수업 참가
라. 양국 명소 견학 등의 문화탐방

3. 신청자격

- 가. 현재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3학기~5학기 재학생으로 누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나. 영어회화가 가능하며
다. 본교측 연수주관시(9. 22(월) ~ 9. 28(일)), Homestay 제공 등 초청프로그램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2003-2학기 휴학예정자는 제외)

4. 연수경비(파견) 연수생 준비부담으로 하되, 1인당 ₩300,000 학교지원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항목, 금액, 비고. Rows for 왕복항공료, 여객보험료, 학교지원비, 개인준비, 합계.

5. 전형방식 학부과정 성적평가 50% · 면접평가 50%

6.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학술문화연수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7.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접수 : 2003. 5. 19(월) ~ 5. 28(수), 국제교류실
나. 면접일시·장소 : 2003. 5. 30(금) 14:00 ~ , 국제교류실
다. 선정자 발표 및 O/T 통보 : 2003. 6. 3(화) 이후 본교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자 : 200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03학년도 8월 졸업) 중 사범대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자 격

- 가.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사범대학생: 교직과목 22학점, 전공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다. 비사범계 학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3. 6. 9(월) ~ 6. 13(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교직안내 게시판에 출력 가능함.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범 대 학



지난 23일부터 3일간 마르크스를 '다시' 논하는 뜻깊은 '축제', 마르크스코뮤날레가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이에 오늘날 왜 마르크스가 유효한지 그 현재적 의미를 찾아 본다.

편집자

# 다시 광장으로 나온 마르크스와 조우하다

## 지구화 시대 마르크스의 현재성 논해 세계적 문제 해결책 마르크주의의 복원으로

“객관적 진리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의 일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생각은 실천으로 행동하는 고민에는 비할 수 없다.

이처럼 최근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르크스’로부터 찾고,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바로 ‘제1회 마르크스코뮤날레’로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지구화 시대 마르크스의 현재성’을 주제로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대규모 학술문화행사다.

지난해 9월 진보적 학자 230여명이 마르크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를 결성, 장기간의 준비 끝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사회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마르크스를 연구하는 단체가 총 망라돼 6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고, 학술토론회는 총 3부 11색션으로 진행됐다.

1부 ‘마르크주의의 쟁점들’에서는 마르크주의와 △철학 △정치경제학 비판 △정치·사회이론 △역사 △문예·문화이론 △종교 △확장론과 비판 등 7개 분야의 쟁점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2부 ‘현대세계와 현시기의 한국사회’는 △현대 자본주의의 △현 시기 한국사회의 성격 규명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으며, 3부 ‘역사적 사회주의의 평가, 변혁운동, 그리고 이행의 전망’은 △현 시기 계급투쟁과 저항 형태를 △역사적 사회주의의 평가, 이행과 변혁의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변혁운동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구 소련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논문의 내용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견지하는 견해에서 마르크스 이론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이를 재정립해 현실 분석의 틀로 삼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마르크스와 프롤레트’ ‘보편적 마르크스’ 등 마르크주의를 재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접합을 시도한 논의도 전개됐다. 21세기 진보적 사회 흐름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마르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90년대에 한국 지식사회에 급속히 유입된 푸코, 알튀세르, 들뢰즈 등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개진되기도 했다.

이 중 탈근대주의와 마르크주의의 연대를 모색하는 제3의 대안을 내용은 ‘탈근대적 마르크주의의 새로운 계급론(신조영)’을 비롯, 리얼리즘 이론의 용도폐기론에 대해 반박한 ‘리얼리즘과 생산이론(양종근)’, 반변증법적인 들뢰즈와 마르크스의 관계를 정립한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종말의 이데올로리(춘)’ 등은 주목할 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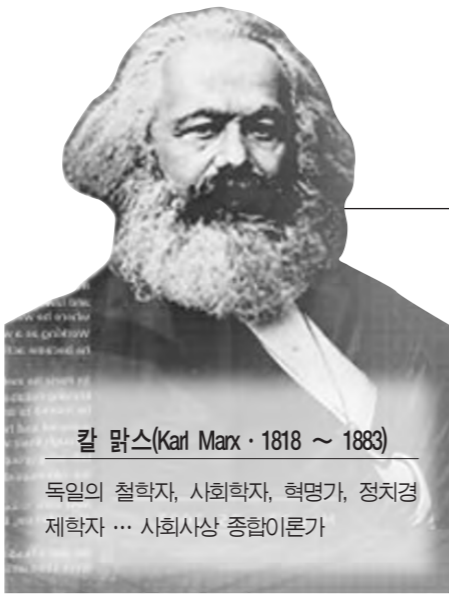


춘) 등은 주목할 만했다.

이처럼 마르크주의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통찰한 마르크주의의 복원을 통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논의가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마르크스코뮤날레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가들이 진보적 이론과 연대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개막문화제 ‘마르크스 놀자’와 폐막문화제 ‘즐거운 혁명, 젊은 연대’는 영상물 상연에서 풍물패와 예술단, 락 밴드 공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치러졌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그림과 조각 등의 전시회도 함께 진행돼 이번 마르크스 코뮤날레는 그야말로 학술행사와 문화행사가 만나 어울린 ‘축제’의 날로 손색이 없었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칼 마르크스(Karl Marx · 1818 ~ 1883)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혁명가, 정치경제학자 ... 사회사상 종합이론가

### 마르크스의 저작

- 1842 루게와 함께 독일년지(獨佛年誌) 출간
- 1843 헤겔 법철학 비판서설 집필
- 1844 경제학·철학 수고(手稿) 집필
- 1845 엥겔스와 ‘신성가족’ 공동 집필
- 1846 독일이데올로기 집필
- 1847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을 비판한 ‘철학의 빈곤’ 집필
-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 엥겔스와 함께 강령인 ‘공산당 선언’ 발표
- 1850 프랑스의 계급투쟁 집필
- 1852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집필
- 1859 경제학 비판 간행
- 1867 자본론 제1권 출판 (자본론 2, 3권은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가 1885년, 1894년에 각각 출판)
- 자본론 4권은 카우츠키에 의해 1905~1910년에 ‘임여가치학설’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형태로 출판)

### 집행위원장 김세균 교수 인터뷰

## “진보진영 연대한 비판·토론의 장으로 이어갈 것”



지난해 5월부터 마르크스코뮤날레를 기획, 준비해 온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세균(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를 만나 마르크스코뮤날레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들어보았다.

- 마르크스코뮤날레란 무엇을 말하는가.  
= 코뮤날레는 자기공동체를 뜻하는 ‘코문(Commun)’과 2년마다 열리는 미술 축제를 뜻하는 ‘비엔날레’의 합성어다. 즉, 마르크스코뮤날레란 마르크스를 주제로 학술행사와 문화행사를 아우르는 ‘코뮤적 축제마당’을 말한다. 마르크스 이론의 정신과 방법에 입각한 이론적·실천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왜 굳이 ‘마르크스’인가.

= 결성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진보이론에서 마르크스이론이 갖는 중요성은 강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진보이론이 마르크스이론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이론이 진보이론의 주춧돌인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모순은 격화되고 신자유주의의 사회 지배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마르크스의 현재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제대로 마르크스이론을 진보이론의 패러다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 제1회 마르크스코뮤날레의 의의는.

= 마르크스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학술행사다. 더욱이 마르크스코뮤날레는 고립된 연구관점에서 벗어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뤄낸 새로운 시도의 행사다. 단순히 연구자들만의 발표 자리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계획은.

= 우선, 첫 행사의 철저한 평가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기된 주요한 쟁점들을 계속해서 토론할 수 있는 논쟁의 장으로 마르크스코뮤날레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마르크스코뮤날레가 관련 학자, 실천활동가, 문화예술가, 노동자, 대학생, 소수자 등 진보진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상호 이해와 소통, 비판과 토론의 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hviolet@dongguk.edu

### 마르크스사상의 사회학적 이론

#### △비판이론

개인에 대한 자본주의의 지배 강조, 비판, 사회질서의 원천과 노동력 폭로, 대안 제시.

#### △세계체제 분석이론

마르크주의적 분석이 민족국가 내의 계급관계를 넘어서 민족국가간의 지배와 종속체제로 확장.

#### △국가론

국가의 핵심구성원과 정책이 경제엘리트에게서 나온다는 이유로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간주.

근대국가는 거대 독점기업이나 소규모 경쟁기업과 같은 경제행위자로 간주.

#### △구조주의

표면적 사회구조는 심층적이고 덜 가시적인 구조의 표현. 마르크스이론에서는 잉여의 사적 전유와 잉여를 생산하는 집합적 조직 사이의 계급관계 모순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

#### △중범위이론

마르크스이론은 특별한 주제가 항상 발견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 국가 또는 국제관계는 물론 민족적 연대, 범죄와 사회통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이론화한 다른 영역에도 관심 확장.

##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한 법



연기영 교수의 뒤집어본 법이야기 (5)

현 단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어느 수준인가. 이 분야는 지난 10여 년 간 커다란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이 개혁되어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식주 해결은 물론 교육, 의료 등 문화적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정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제의 정비를 단행, 태생적 한계를 가져 왔다.

건강, 연금 등 사회보험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용주의적 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제도화했다.

재정안정이란 이름아래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늘리고, 보험료를 마구 올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무리한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로 환자와 의사, 의사와 약사 등 이해관계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제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생산복지와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부디 기존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버리고 유립식(특히 독일식)의 사회적 복지국가의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 지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사회복지행정 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에서 수급자 편의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소송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RD)의 개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사회복지관계의 확대와 국제수준에 알맞게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뒤집어본 법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법의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며, 결국은 ‘법’ 없는 정토사회건설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친 소유욕에서 해방될 때, 나아가 인간은 본래적으로 부질없는 ‘티끌’이라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멈추어 설 때, 법은 인간사회를 윤락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향기가 될 것이다.

###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

1. 세계생태학의 동향과 전망
2. 불교생태학의 현주소
3. 불교생태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4. 불교생태학의 발전적 추진 방향

지난 2일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해 불교생태학의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 구체적 ‘프로그램’ 특색 맞춰 추진해야

불교생태학은 넓은 의미로 ‘불교와 생태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 가능한 학문분야로서는 불교학과 생태학을 중심으로 생물학, 환경공학, 건축·토목공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은 크게 연구부문, 교육부문, 사회·문화부문에 나누어 각각의 특색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교육·사회문화 프로그램

연구부문은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문 내용적 이념의 도출 및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불교와 생태학에 관심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기적 독서·토론 그룹’을 구성, 주요한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운영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그룹으로 만들어 나간다.

또한 불교생태학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제도준비연구팀’ 그리고 협의의 불교생태학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불교생태학연구부’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저널 및 단행본의 발행 △학술세미나 △국제생태학회 참여 △특강 및 단기 초빙교수 등도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문은 생태불교학의 이념 및 학제간 연구 방법론을 현실에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 핵심은 대학원 ‘불교생태학 협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통합적 학문인 생태학이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받고 있었음에도 현재 타 대학에 이 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교생태학 협동과정이 설치된다면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개설돼 있는 교양과목이나 각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환경 생태학 관련 강좌들의 내용을 보장하고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외에 불교대학원을 협의의 불교생태학 및 실무적인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선하고, 일반인들의 의식·가능교육을 담

당하는 시민환경대학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사회·문화부문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활동들과 더불어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들도 기획하여 교내외의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청소년 불교생태학교 프로그램 개발 △시민사회·환경운동, NGO 등과의 협력·교류, 생태운동 활성화 지원 △환경·생태를 주제로 예술 관련 문화이벤트 행사 개최 △세계환경영화제, 세계환경음악제 등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 문화이벤트 준비 △미국 환경운동 그룹들과의 교류 △국제 학술교류 등이 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 추진 시 유의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생태학 협동과정의 개설과 운영은 충분한 연구·검토 작업이 이뤄진 후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사업의 경우 종단 및 불교 시민사회 운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제간 연구에 참여할 각 주체는 환경·생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학문적 교류와 열린 연구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박경준 불교학과 교수

# 대학가 축제 관객불황에 시들... '일상의 축제' 만들어야



대동제의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태고적까지 한 없이 추적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동제가 문화운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대동제의 기원을 알 수가 있다.

### 대동제의 참뜻

70년대 김지하의 '종자나 자살이나' 테제를 시작으로 무르익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문화운동은 마당놀이와 각종 연행놀이를 주요 모티브로 삼아 왔다. 대동놀이 역시 그런 가운데 등장하게 된 의식이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대동제 자체가 아니라 대동놀이의 원리이고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동제를 80년대의 산물이라는 등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등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오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동놀이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스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테크노 댄스를 추다가 일종의 무

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해 보라. 몇 백 몇 천의 사람들이 커다란 원형대형을 이루고 그 대형을 따라 혹은 그 대형으로부터 변주를 내면서 무한정으로 자기 육신을 진화해 나간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동놀이를 무슨 별레 보듯 파시즘적인 히스테리 취급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동제를 통해 사람들은 약 일주일간의 한바탕 축제를 마무리하며 전혀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대동 속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일상의 삶의 원리로부터 탈주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대동제라는 것은 본래 난장의 극치이며 일상을 축제화하려는 카니발적인 기획이었던 셈이다. 물론 옛날 무용담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혹여 대동제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누린 바 있다.

지난해 6월을 한번 떠올려 보라. 서울의 거리 모든 곳에서, 한반도 모든 곳에서 대동제를 즐겼지 않았던가.

사실 근 몇 년 동안 각 대학의 대동제는 맥을 못추고 있다. 요즘의 대학문화에서 대동제는 '트랜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일부 사람들만 참가하는 행사,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던 매년 되풀이되는 메시지들.....

### 대학문화를 살리려면

사실 대동제가 예전 같은 형상으로 난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새로운 탈주를 기획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예전 대동제라고 단점이 왜 없었을까.

대동제는 일년에 한두번이 고작이다. 즉 축제

가 끝나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동제만으로는 대학문화 일반을 사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동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점을 따려고 매달리고, 토익·토플과 고시자격을 따려고 매달리는 게 요즘 대학문화 아니던가. 다시금 강조하지만 대동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동제의 원리가 중요하다.

차라리 일상의 축제화를 피하는 게 어떨까. 일상이 카니발이고, 난장이기를 버린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대학문화를 견져내는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주변의 일상을 축제적으로 탈바꿈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일상으로부터 탈주하는 기획을 시작으로 대학문화가 자기가치를 증식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김성운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본교 대동제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우리 PEACETIVAL'을 기치로 진행된 이번 대동제는 동악 곳곳을 축제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학생들의 참여 부족과 매년 반복되는 '식상한' 행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학 축제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번 대동제를 평가해 본다. 또한 타대학 축제 기간 중 진행된 이색적인 행사를 통해 본교 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 교환학생과 새내기들의 대동제 들여다보기

# 본교 축제 대만과 일본에 판정패

## 학생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긍정적 평가 분위기는 "글썸..."



본교 축제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의 눈에 비친 대동제는 어떤 모습일까. 대만과 일본에서 본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오가연(중문4, 이하 오) 양과 시모카와 유키에(정외3, 이하 유키에) 양, 사회과학부 새내기 박봉기(이하 박) 양과 함께 지난 21일 학내 곳곳을 돌며 대동제를 살펴보고 대만, 일본의 축제와 비교해 봤다.

### #1. 들어가며...

유키에 = 축제인데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본에서는 잡지에 각 대학의 축제 정보가 나와서 축제를 하기 전부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거든. 2주전부터는 행사 일정, 소개가 광고판에 나오고, 축제 때는 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안내코너도 마련돼 있지.

오 = 그런 대만도 마찬가지야. 동국대학교 축제는 안내코너가 없어서 불편한 것 같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세한 행사 일정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축제에 놀러온다면 어떨겠어.

박 = 우와, 안내코너는 좋은 것 같아. 우리학교도 그런 것 하면 좋을 텐데..... 그래요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큰 행사는 플래카드나 대자보에서 봤어.

### #2. 행사시간

오 = 어! 12시 넘었는데 '6.15 김밥말이' 왜 안 하지? 장소가 변경됐나? 아님 시간이 늦춰졌거나. 대만에서는 이런 일 없는데.....

유키에 = 맞아.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 이것은 행사를 보려고 찾아온 손님들한테 실례하는 거잖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질 텐데. 이런 행사 주최자와 참여자들의 신뢰의 문제니까 말아야.

### #3. 먹거리

박 = 먹거리를 많이 파는 것은 좋은 것 같아. 과일 피치나 생과일 주스 등등....., 고등학교 때 대학 축제 생각하면 놀이랑 먹거리가 먼저 생각났거든.

유키에 = 맞아. 축제는 역시 먹거리지. 일본 축제도 먹거리가 되게 많아. 음식점만 100개정도 있거든. 요코노미야끼, 아키모... 없는 게 없어.

오 = 근데 학생도 아닌데 학교 안에서 이런 것 팔아도 되나? 대만에서는 학생들 아니면 축제 때라도 뭐 팔거나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술도 안 팔아. 술 많이 먹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유키에 = 일본도 술은 안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축제에서도 파는 것 같아. 문

화적 차이인가봐.

### #4. 놀이

박 = 대학 축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저기 농구 게임이나 초코파이 빨리 먹기 대회 같은 것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아침부터 한곳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축제였거든. 3학년이 되면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끔 TV에서 대학 축제를 보아줄 때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재미없잖아.

유키에 = 맞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은 것은 좋은 것 같아. 일본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놀거든. 그래서 행사 주최자가 아니면 별로 재미없어. 축제가 학교 전체가 즐기는 것보다는 학교 홍보의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이란 말이야. 분위기 자체를 즐기고 학교를 구경하는 것이지.

오 =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전통혼례도 그렇고 특히 공기놀이 말이야. 오늘 처음 해봤는데 어렵지만 되게 재밌다. 한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런 것 하면서 노는구나.....

### #5. 나머지...

오 = 축제기분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복잡거리지도 않고.

행사하는 곳이 넓게 퍼져 있어서 그런가? 대만에서는 대운동장에 모여서 하거든. 동국대학교의 축제가 어떨까 기대 많이 했는데 행사 분위기가 별로여서 실망이야. 혹시 다음에 축제를 구경할 기회가 또 생기면 많은 사람들로 복잡복잡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유키에 = 난 축제의 분위기가 일본과 많이 다른 것 같아 신기했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 것 말이야. 행사시간을 맞추지 않은 것이나 안내코너가 없는 것에는 실망했지만 홍보를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면 더 재밌는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행사에 대한 소개가 일찍부터 되면 학생들의 참여도 많아질 수 있을 테니까.

박 = 전 축제기간 중에 수업도 같이 해서 아쉬웠어. 낮에 진행되는 행사는 수업 때문에 못 보는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오후에 진행되는 강의 일 경우엔 밖이 시끄러워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무슨 행사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울까 하는 생각에 공부도 잘 안될텐데. 축제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학교측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진성 기자  
yearam@dongguk.edu



더위야 가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온 더위 때문이었을까. 학내 곳곳에서 피는 음료수와 물풍선 던지기 행사가 더욱더 시원해 보인다. 물풍선에 맞은 학생들의 기분은 축축? 시원?



통일 김밥...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 기간 중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김밥 만들기 '6.15 김밥말이' 행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김~ 김밥. 상하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을까.

## 대동제 스케치 앨범



우리는 '하나'... 언제 들어도 신나는 락. 'Rock Festival'에 참가한 학생들은 참을 수 없는 락의 매력에 빠져 공연하는 학생들과 하나가 된 듯 하다.

### # 이런 축제 어때?

## 주인공은 바로 '나'

### 위덕대 이색 모의재판 개최

학생들이 노래, 춤 그리고 연극을 감상하는 단순한 관객이 아닌 축제의 주인공임을 당당히 밝히는 이색적인 행사가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위덕대학교에서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을 주제로 열린 모의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성전환 여성을 강간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죄명이 불려진다면 법정 무대에 선 피고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 무대를 둘러싼 학생 개개인들은 직접 원고와 피고를 변호해 각자의 의견을 내 놓았다.

실제 성전환 여성을 강간한다면 법원 판결로는 무죄가 나온다. 그러나 김상덕(위덕대 법4) 군은 "성전환 여성들도 영색체만 남지일 뿐 자신의 의식과 신념은 여성임으로 일반 여성의 강간 사건과 동일시해 성전환 여성의 승소로 판결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타지역 고등학교에서 직접 견학과 사회적 문제를 모의형식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축제를 배움의 장으로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

<진>  
jina-0909@mail.dongguk.ac.kr

## 각국 문화 체험하는 축제의 장

물풍선 던지기, 노예팅, 주점... 본교에서 대동제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행사들이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웃으며 행사에 참여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본교 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대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열린 축제기간 중 3일 동안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계 각국의 음식, 의상 등을 볼 수 있는 '월드 빌리지 맞이 꼬마 세민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베트남 라면, 태국 열대과일주스 등 각국의 전통음식을 맛보며 전통음악과 그에 맞춘 춤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꼬마 세민제에 참가한 강경신(리시어1) 양은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춘 '외대 만의' 축제를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매년 열리는 대동제, 본교도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황>

hjs0228@dongguk.edu

## 지역주민도 축제 구성원

### 학교에 대한 주민 관심 유발해

본교 축제의 행사장에서 학생을 제외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가요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학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축제의 주요 주체가 학생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지역주민과 함께라면 어떨까.

아주대 총학생회(회장=김두한·경영4)는 축제기간 전 교내에 한뼘 기증함을 설치하는 한편 직접 서울 소재 대학을 돌며 학생들에게 안 쓰는 물건을 기증 받았다. 또한 이렇게 모은 물품으로 복지단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아주대앞 삼거리에 재활용 가게를 열었다.

이 가게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 다른 행사에 비해 참가자가 많았다. 특히 학생들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축제기간 중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본교 역시 대학 축제라 해서 학생들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보다 지역 모두의 축제를 열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황>

hjs0228@dongguk.edu

♣ 만화로 본

## 대동제의 과거·현재·미래

by 성역환



아나바다 ... 총학생회는 축제전 학생들에게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 받아 축제 기간 중 벼룩시장을 열었다. "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물건 어때요?"



호신술 ... 대동제에서 각 동아리들의 공연은 빠질 수 없는 행사. 팔정도에서 진행된 태권도 동아리 선무부의 시범이 눈에 띈다.

## '우리 Peacetival'



밥? 술? 둘 다 OK! ...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점. 이번 대동제에는 밥 집'도 등장했다. 축제기간 중에는 밥도 술도 학교에서?

사진·글 = 사진부

### 2003 대동제 평가

## 학생과 하나되는 축제로 거듭나야

### 행사는 풍성했지만 상업성·주차 등 고질적 문제 여전

2003년 목역대동제는 '우리 PEACETIVAL'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이번 대동제는 대학축제의 큰 흐름인 반미·반전 평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예년에 비해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진행한 행사가 풍성했다.

또한 시작 바로 전 주에 5.18주년을 마련해 학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노래경연대회, 스타크래프트 예선전을 치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뿐만 아니라 학과실 꾸미기 대회, 새내기 농구대회, 6.15 김밥말이 등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들도 많이 마련됐다.

동약 곳곳을 축제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다. 동국관과 명진관 위주로 진행된 예전과 달리 올해는 신 도서관, 팔정도, 학생회관, 학림관 부근에서도 많은 행사가 이뤄졌다. 이는 학과별 행사가 양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연유한 것이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주요 행사가 6.15 김밥말이, 반미그림전시회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준비 미흡으로 인해 행사 시작 시간 연기와 학과 행사의 대부분이 주점 일색이라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중 수익금을 '이라크 난민을 위한'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명대 학우를 위한' 취지로 사용하는 일부 학과 정도가 눈에 띄었

다. 전반적으로 각 학과에서 진행한 행사가 최근 몇 년과 다르지 않아 주제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특히 올해는 외부 상인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후원 업체의 광고도 예년보다 증가해 축제 분위기를 흐렸다는 평가다.

반면 축제 기간 내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의 상업성을 감시하는 '대동제 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화여대의 사례는 본보기로 삼을 만 하다.

주차 문제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다. 축제 기간 동안 구 도서관과 원흥관 부근의 주차를 막아 정각원과 동국관 일대는 '자동차 축제'를 방불케 했다. 신축 도서관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했지만 번거로움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외면해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다.

큰 행사 때마다 지적되는 쓰레기 문제는 이번 대동제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홍보 포스터와 일회용품을 그 주범으로 꼽을 수 있다.

연세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제기간 동안 분리수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을 벌인 후 폐막식 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운동이 축제의 한 행

사로 자리잡으면서 올해 대동제는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참여 부족 문제는 축제의 주인이 바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2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커피초강전은 참여부족으로 취소됐고 6.15 김밥말이도 참여 학과가 네 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올해 대동제를 기획한 김성호(정보관리4)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했지만 학생들의 무관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행사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동제가 진정 학생들과 호흡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사 주제와 향유자를 불분하고 축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제는 단지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대동제는 '즐거려 하는 자만 즐길 수 있는' 학생의,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축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행사주체·참가자들의 말·말·말

타로 카페 행사장 앞에서...

△법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 무겁고 답답한 것들만 생각하죠?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법대는 새롭게 신선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 법대 98학번

△우와! 내 생활이랑 맞는 것 같기도 하구 무지 재밌네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습이파요  
- 행사에 참가한 03학번 새내기

주점에서...

△남은 술이요? 우리가 다 마셔버리면 되죠. 주점이 좋은 것은 술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 광고학과 02학번

△고등학교 축제랑 가장 다른 점이 '주점' 문화 같아요. 그런데 아침이면 학교가 술 후유증으로 난장판이 돼서 실망스러워요.

마당뵈미 행사 중...

△일년동안 몸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대동제가 대학 최고의 축제인 만큼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 단풍연  
△역시 축제는 시끌벅적 해야죠. 흥겹고 즐거워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것이 최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도서관 앞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지 제대로 된 축제 아닌가요?

소나기

한총련 합법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이성이 있다면 한총련 합법화는 반드시 돼야 한다.  
 △한총련 합법화는 당위성이 있다. 수많은 한총련 학생들이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  
 △물 건너갔다. 포기해라.  
 △가다가가자! 한총련이어~ 통일 조국으로.  
 △한총련 합법화 결사반대!  
 △관 좀 하고 공부나 해라. 통일은 절대 안돼! 슬대없는 짓 하지말고 일 해!  
 △한총련 합법화는 꼭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합법화 찬성. 국가보안법철폐 찬성!  
 △관심없음. 그러나 합법화가 된다면 나도 대통령 협박하러 갈 것임 취지시켜달라고.  
 △합법적 해체라면 해체하라!  
 △좌익용공세력  
 △자주 민주 통일 전선으로. 한총련 것발 뉘노이  
 △절대반대 법은 지켜져야 한다.  
 △한총련은 새로워져야 한다. 합법화는 말도 안 된다.  
 △한총련 합법화. 우리 총학생회장이 의장 됐으면 적극 찬성했을 것이다.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준 후 합법화를 주장해야지. 왜 무조건 합법화를 우선이라 생각하는가.  
 △투쟁해라! 한총련이어 반미! 자주! 함성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단순히 비판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합법화 찬성!  
 △한총련의 합법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5월 18일 광주에서의 일반 보도 알겠지만 한총련의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한총련은 이적단체! 알가에다를 본 받아라!  
 △그럼 북한도 합법화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  
 △이번 노무현에게 한 짓은 매우 멋있었습니다. 한방 먹었어.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탁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지상논쟁

학과제 회귀, 무엇이 문제인가

영터리 학부제 VS '무늬만' 학과제 핵심은 '내실화'에 있다

단지 신입생의 소속을 학과로 지정하자는 것이 학과제 주장의 핵심이라면 학부제와 마찬가지로 학과제도 역시 필패의 수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부다운 학부도 필요하고 학과다운 학과도 필요하지 모두 학부이거나 모두 학과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학부제와 학과제의 지상논쟁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5월말이다. 우리 대학 학부제는 부실한 학부제다.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했지만 아직도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학부제 문제가 제아무리 불거졌다하더라도 이런 부실한 학부제의 대안은 자동적으로 학과제라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조직문화와 학연, 자연문화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소속감과 공동체 문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비인기 전공·학과와 학생 수 확보라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 학과제 주장의 실상이라면 마치 기득권 안정에 역점을 두다가 퇴행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조선의 성리학적 명분리론, 인의열치 주장이 다시 슬그머니 살아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단지 신입생의 소속을 학과로 지정하자는 학과제 주장의 핵심이라면 학부제와 마찬가지로 학과제도 역시 필패의 수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무릇 어떤 조직의 정책을 결정할 때 먼저 그 조직의 존재의의와 조직을 예워싸고 있는 사회 외부환경 변화를 꼼꼼히 읽어낸 다음 그 변화를 감당하여야 하는 조직내부환경과 조직구성원의 변화 대처능력수준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또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비전 제시, 그리고 내부 구성원간의 친화력이 필요하다.

제아무리 사소한 대학 내 교육정책과 행정이라도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땀 먼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NIS), 정부인적자원개발 기본정책, 산업자원부 대학교육정책, 산학교육협력법, 지방대학육성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외국인 학생 유치전략을 면밀히 세워야할 시점이다.

우리대학의 특성을 심본 살려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사립대학다운 학사조직을 갖춰 몸가 가볍게 하며, 기초학문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하여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허식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대학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모든 교수와

조교를 대상으로 교수법을 교육·훈련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하여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

학과제 재시행 이전에 대학 내 학과와 전공프로그램에 대한 수행기준 마련 및 평가, 그리고 아울러 학과와 전공의 퇴출기준과 절차를 연구하여 구성원에게 미리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21세기 동국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사회수요, 분포 그리고 졸업생 고용주 보고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지도와 평생교육을 통한 분교 및 전 장기 선순환 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기 위한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기부와 기여행위를 구분하여 이를 재화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은 구호로만 성공할 수 없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기술과 수단, 방법,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집행하면 반드시 집행부가 물러난 후 반개혁의 물결이 쇄도하기 마련이다.

어설픈 개혁은 화를 자초하여 조직 자체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아오지 않았는가.

유사과목이 일정수준 이상 중복설강된 전공프로그램과 사회수요가 미약한 전공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학부로 만들어야 대학, 소속교수, 학생이 모두 사는 윈윈(win-win)작전이다. 분명한 점은 아직까지 분교 어디에도 학부다운 학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학부다운 학부도 필요하고 학과다운 학과도 필요하지 모두 학부이거나 모두 학과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과 같이 12개 단과대학, 62개 전공, 53%대의 교수확보율(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 58%, 교육부 기준 60%), 학생 1만 5천 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학과제로 회귀하는 일이 우리 대학발전에 특이 필치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학부제와 학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펼치고 백주년을 앞둔 동국의 기개와 전통을 살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짚어지는 자세를 사회에 보여주길 학교당국에 간절히 바란다.

전영일  
건축학과 교수

본지는 지난 5일자 지면에 실린 홍윤기 교수의 '학과제 회귀, 문제 있다'는 논쟁 제안 글을 시작으로 '학과제 회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지상논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글을 환영한다. 단 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신공격·비방이 담긴 글은 실지 않도록 한다.

편집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위해 학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의 교육,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교육체계, 언제든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제, 학벌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진정으로 가능한 학제를 꿈꿔본다.

나는 이것이 학부제라면 학과제보다 오히려 학부제에 찬성하겠다. 아니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학부제의 명분이 그저 말로써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 총장님은 취임 전 공약에서 학부제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 학생, 교수 간 논의를 통해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의 교육,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교육체계, 언제든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제, 학벌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진정으로 가능한 학제를 꿈꿔본다.

나는 이것이 학부제라면 학과제보다 오히려 학부제에 찬성하겠다. 아니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학부제의 명분이 그저 말로써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 총장님은 취임 전 공약에서 학부제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 학생, 교수 간 논의를 통해

2004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정산대 일부, 야간강좌는 기존의 학부제를 고수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교수확충, 커리큘럼 재편·보완, 교육환경 개선, 학사행정 보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런데 요건이 안되니 학과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이유는 공감하기 힘들다.

합의한 안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개별 단과대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안을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과대에서는 학생총회와 교수님들과의 논의, 학과장 간 논의를 통해 학과제로의 전환이라는 합의안을 도출, 이 안을 학교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2004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정산대 일부, 야간강좌는 기존의 학부제를 고수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측은 사과대의 학부제 고수에 대한 이유로 전체 이수학점이 120학점이라는 점, 비인기학과와 지원 미달과 수능점수 하락 우려, 커리큘럼과 교수 수의 부족 등 제반 교육환경의 미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당국이 제시한 사과대 학부제 고수 이유에 공감할 수 없다.

이수학점이 120학점이라면 늘리면 될 것이다. 사과대의 총 이수학점은 2002년도부터 120학점으로 줄어들었다. 02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모두 120학점으로 동일하지만 현재 4학년을 제외하고는 입학 년도에 상관없이 남은 학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총 이수학점을 적용하고 있다. 총 이수학점에 120점과 140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등급으로 총 이수학점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2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학점이 총 120학점이라 하더라도, 2004년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의 교육,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교육체계, 언제든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제, 학벌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진정으로 가능한 학제를 꿈꿔본다.

나는 이것이 학부제라면 학과제보다 오히려 학부제에 찬성하겠다. 아니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학부제의 명분이 그저 말로써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 총장님은 취임 전 공약에서 학부제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 학생, 교수 간 논의를 통해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의 교육,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교육체계, 언제든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제, 학벌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진정으로 가능한 학제를 꿈꿔본다.

나는 이것이 학부제라면 학과제보다 오히려 학부제에 찬성하겠다. 아니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학부제의 명분이 그저 말로써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 총장님은 취임 전 공약에서 학부제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 학생, 교수 간 논의를 통해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건전한 축제 위한 일침 교육의 질 되새긴 기회

지난주 1면에 게재된 '불교병원 개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다. 사실 병원 개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구성원의 논의가 분분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개원 절차와 준비에 대한 기사를 기대해 본다.

20일부터 3일간의 목욕대동제를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PEACE TIVAL'이라는 주제와 사회의식·문화가 결합된 대동의 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정형화된 또는 주점 위주의 행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일침도 있었다. 좀 더 나아가 동대신문이 바람직한 대학 축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대안제시의 창구 역할도 함께 했으면 한다.

최근 3주에 걸쳐 동대신문 여론면의 '지상논쟁'을 통해 학과제 회귀에 대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라는 문제와 그 개념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첫 문제제기 이후의 토론은 주된 반론과 함께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도 수렴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문화인 릴레이 대답'을 보면, 쉽게 그 주제를 파악하고 기사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편집자의 간략한 취지를 읽지 않거나 또는 단지 '민족문화'라는 모호한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번 대답의 개략적인 내용과 전개에 대해 짐작할 수가 없었다. 주제 선정과 부각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김진환(개교 100주년기념사업단 과장)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필수야! 마스크만 탓 것 정말 축하한다.  
 △24일 준희오빠 생일축하해요~ 신자  
 △토목환경공학과 제21호 커플 탄생!  
 △성민민이와 아름이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CCK 일동  
 △현정이가랑 정근이가랑 200일원거 축하해.  
 △효종이가랑 은미랑 사귀지 5년된 거 축하해!  
 △귀냉이~ 생일축하해.  
 △26일 전지에 선배~ 생일 축하해요!  
 △영수야! 불교와 인간 A 받은 것 축하한다.  
 △지리교육과 인제♥정수 800일을 축하합니다. -K대 장군  
 수고하셨습니다  
 △병준아! 아이스크림 곱합다. 더운 날씨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말아!  
 △정원아~ 시험친다고 수고했어. -표  
 △축제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매비언 식구분들!  
 △사과대 대동제 기획팀 수고하셨습니다. -03일동  
 △SSID 대동제 개막공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좋은 모습 부탁! -룡  
 △야총 문예패 문화제 준비하느라 고생한 차돌, 들풀, 마당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아장  
 △수학교육과 4학년 졸업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마당 사람들 대동제 최고였어요.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 기대할게요. -eunbiryung  
 △기타소리 드림소리 시끄러운 가운데 열심히 중도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기간에도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죠.  
 △토목환경공학 여러분들~ 토목 전 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중여중분학과 축제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주

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열심히 합니다  
 △feel, 자연이형. 정기공연 준비 열심히해라! 끝나고 전하게 한잔 하자.  
 △조태종 열심히 해라.  
 △수교과 졸업고사 준비 열심히 합니다!  
 △광삼아 우리 이제 공부하지 않을래?  
 △준민이형~ 미션 완수해!  
 △어깨형님 운동 더욱 열심히!  
 -토목환경공 조지훈  
 △수교과 4학년 학우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 한번에 합격 합니다.  
 -97 재운  
 △FCSS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안집에서 디지털 녹음기 습득하신 분! 011-9944-9318로 연락주세요.  
 △독일학 김정규가 일정입니다.  
 -02일동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5/26)	쇠고기당면탕 (1500) 오징어까스 (1500) 얼무비빔밥 (1500)	쇠고기무국 (1300) 해물소스볶음밥 (1500) 아육구백반 (1500)	된장찌개 (3000) 콩나물볶아해장국 (3000) 층어찜 (3200)
화(5/27)	육개장 (1500) 참치볶음밥 (1500) 닭도리탕 (1500)	참치김치찌개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김치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불낙전골 (3200) 쇠고기볶음밥 (3000)
수(5/28)	양지탕 (1500) 만두탕수 (1500) 너비아니구이 (1500)	사골곰탕 (1500) 어묵떡볶이 (1500) 치킨샐러드 (1500)	된장찌개 (3000) 돌솥비빔밥 (3200) 공치구이 (3200)
목(5/29)	햄숙어찌개 (1500) 불고기 (1800) 오징어소면무침 (1500)	쇠고기장국밥 (1500) 돈장조림 (1500) 생야채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생선까스 (3200) 제육김치달걀 (3200)
금(5/30)	쇠고기미역국백반 (1500) 두부김치 (1500) 오므라이스 (1500)	오징어볶음 (1500) 라조육 (1500) 감자탕 (1500)	된장찌개 (3000) 사골우거지탕 (3200) 오징어소면무침 (3000)

### 달하나 천강에



김영민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거의 모든 것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강의실이라는 환경 속에서 교재와 강의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 속은 지식, 감성, 그리고 지혜를 받아들이고, 느끼며, 단편적인 정보를 체계화하여 '나'라는 인식과 말, 글을 통한 표현의 주체를 형성해간다.

요즘 들어 인터넷과 웹페이지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강의가 많이 늘었다. 교실이라는 환경이 사이버 공간으로 치환되어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가상현실의 주체는 동영상 파일과 음성파일,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보고 듣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

배움의 주체는 이제 '네비게이터'가 되어 컴퓨터 앞에서 화면에 제시되는 정보를 습득하고, 웹 서핑을 하며 사이버공간을 항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토로한다.

다양한 전자문서파일(electronic texts), 오디오 파일, 테이프와 동영상, Mpeg파일, 미디어 파일, 웹페이지 등의 전자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기계적인 탐색 복사 작업에서부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 판단, 그리고 나아가서는

## 온라인 강의와 내면 세계

그 결과를 재현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이해를 포함하는 제반 학문행위가 바로 온라인 강의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라인 사이버강의가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배움의 주체가 자신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인간의 정신은 보통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배움의 데이터가 정리, 분류되고 조직화되어 인식의 저장고인 두뇌에 축적된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강의는 의식적인 인식과 표현이 자유롭게 토로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다. 배우는 주체의 무의식이 다소 억압되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는 우선 시간의 제약없이 어느 때라도 편리한 때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강의내용도 동영상과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강의내용을 시각화 입체화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도 명상적인 아웃풋이 동시에 생성될 수 있다.

토론게시판에서 주제에 따라, 다른 수강

생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비평하여, 리플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

채팅방에서 자신의 궁금증을 내던져, 같은 문제로 속고하고 있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얻어낼 수 있고, 외로이 분투해야 하는 탐구의 여정을 다른 이와 공유하며 즐거움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5년 정도의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 강의 경험을 통해, 필자는 수강생들이 면대면으로 얼굴을 익히는 인간적인 만남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올려놓은 글을 통해서 수강생 의식과 무의식이 포함된 깊이있는 내면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무의식적 욕망까지도 드러낸 상상의 자유까지도 포함한, 교실강의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채팅에서도 처음에는 낯선이와의 만남이 사이버마인드를 지닌 글쓰는 주체가 되어 무의식에 저장된 지성, 감성, 상상력에 바탕을 둔 창의성이 발현된다.

이제 온라인 가상강의에서 배움의 주체가 자신을 초월하여 무한한 가능성의 글쓰기 주제로 발현되는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이 되어간다.



### 오늘의 이슈

권오상 (법2)

#### 5.18 민주항쟁 주간 첫 기획자

### "5.18 민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학살하고 남은 돈 29만원?'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큼직하게 인쇄된 포스터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본교에서 진행된 5.18 주간 행사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였다. 권오상(법2) 군은 이러한 5.18주간 행사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한 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를 기획한 경험이 거의 없던 권 군이 이번 행사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5.18 민주항쟁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영화 '꽃잎'을 본 후, 평소 습관대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군부정권의 잔인함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특히 그는 5.18 민주항쟁에서 끝까지 광우를 지킨 '민중

의 힘'에 주목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5.18 민주항쟁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숨을 거두었지만 항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일용직 노동자거나, 철거민들을 비롯한 민중들이 억압받고 있는 한 항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 군에게 있어서 민중은 현대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는 '창'인 셈이다.

그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발족식과 토론회는 10여 명 남짓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했고 그나마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 상영도 장비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셈이다.

하지만 권 군은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새로운 계획을 구상중이다. "제주 4.3항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민주항쟁을 묶어서 행사를 진행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준비를 일찍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고, 홍보활동을 활발히 할 생각이에요."

'민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는 권 군. 민중의 힘을 '희망'이라 이야기하는 권 군과 같은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5월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화)

gazababo@dongguk.edu

### 익명게시판 취지 살리자

본교 홈페이지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공간인 '나의 주장'이라는 게시판이 있다. 이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실명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곳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글들이 올라오며 주제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선후배나 동기들에게 묻는 궁금증들, 시사토론 등, 글의 수만큼 조회수도 많고 답변도 활성화 되어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은 게시판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요즘 익명성을 이용해 비방과 욕설 등이 난무한다는 것을 이유로 게시판을 실명화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게시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쉽게 눈에 띈다. 게시판 곳곳에 있는 비방과 욕설,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글들은 소위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이 쓴 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글들이 있다.

익명게시판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실명이 아니라는 것만을 이용한다면 이곳은 익명의 자유를 빼앗기거나 게시판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를 자신의 잘못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기 전에 익명게시판의 취지를 따라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

서진주(사과대1)

### 더불어 살려는 '노력'이 곧 평화다

평화라는 말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노동자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는 모순과 차별, 착취가 있지만 아무소리도 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를 평화롭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이 '너이상 못 참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평화가 깨졌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이란 무엇인가.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일 것이다. 일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일 것이다.

나는 효순이와 미선이를 기리며 소파개정을 외치며 아직도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몇 개의 촛불들에게서 평화를 본다.

새만금개발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3보1배 현장에서 평화를 본다. 한총련 이적 규정 철폐를 위해 천막 농성을 벌이시는 그 부모님들에게서 평화를 본다.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항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평화로운가.

이제 보름 뒤면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죽은지 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시청 앞에서 함께 평화를 이야기해 보고 싶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촛불을 밝히자.

유민지(사과대 사회2)

### 흡연 피해 막는 근본대책 필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요즘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물론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자에게 담배 피울 자유가 있듯이 비 흡연자들에게도 담배 냄새에서 해방돼 살아갈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간접 흡연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물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시설을 따로 만드는 등 그들을 위한 정책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규제나 제재 차원을 넘어서 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그저 코앞에 떨어진 불덩이만 의식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하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개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생명과 직결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을 가정과 학교의 인원에서 시켜야 한다.

또한 꾸준히 금연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사람들에게 담배의 폐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어느 한 개인의 힘이 아닌 우리 전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박봉기(사과대1)

### 달마의 선

고요하게 흘러  
맑은 달빛에  
부드러움 숨기고  
휘어지면서 대나무를 밀어버린다.

불타는 욕망이  
숲을 울리면서  
그녀의 눈에서 일어나는 경의 떨림

고요하게 흘러  
경의 그림자에  
내 손을 펼치고  
도의 길을 물어본다.

서상훈(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원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함.
- 시행시기** 2003. 6. 2(월) ~ 6. 15(일) 중.
- 대상** 2003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척도 중 일렬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척도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화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 “하늘과 하나된 나”

정준욱  
정보통신 2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지만 난 특히 주말이 기다려진다. 일주일의 피로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와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고민하던 중 날 사로잡은 것이 인연이 되어 비행을 한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요즘엔 패러글라이딩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 레포츠지만 대중화하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인지 아직도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신기하고 부럽다는 듯 바라본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내가 비행을 좋아하는 데 한 몫 하는 것 같다.

오늘은 주말. 그것도 날씨가 맑은 주말이다. 패러글라이딩은 항공 레포츠이기에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은 비행하기에 적당한 날씨다. 맑고 바람도 적당히 분다.

오늘의 비행장소는 영종도 백운산. 지금은 인천공항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지만 내게는 그저 좋은 비행장일 뿐이다.

동리리 방에서 글라이딩 장비를 꼼꼼히 챙긴다. 하늘에서 날 지켜줄 장비들이기에 책가방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만 한다. 영종도 백운산까지 가는 길은 장비의 무게가 꽤 나가기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비행할 걸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배를 타고 가는 길엔 갈매기들의 환영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많은 비행장이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 백운산은 등산을 해야한다. 장비를 메고 등산하기를 20여분. 온몸이 땀에 흠뻑 젖지만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하지 않을까?

떨리는 맘을 뒤로한 채 기체가 띄고 두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높고 넓게만 느껴졌던, 새들의 영역이라고만 느껴졌던 하늘은 내 것이 된다. 저 먼 곳에는 바다도 보이고 깃가를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잠시 하늘을 소유한 기쁨을 간직한 채 착륙을 하면 또 하늘이 그리워진다. 그러기에 또 힘든 산행을 하고, 또 하늘을 소유하고, 스치는 바람을 느낀다.

시간가는 줄 모르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 펼쳐진 일몰을 보면서 난 생각한다. 패러글라이딩은 내 대학생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벌써 다음 주말이 기다려진다.

### 문화인 릴레이 대담



- ① 민족문화 - 류기형(민족예술단 우금치 대표)
- ② 대중문화 - 전유성(개그맨 겸 연출자)
- ③ 사회문화 - 황철민(다큐멘터리 감독)



전 유 성  
개그맨 겸 연출자

- 1989년 '개그 콘서트'로 데뷔
- '꼭소대작전' '유머번지' 등 출연
- '개그콘서트' '암모암모 앙상블' 기획
- 컴퓨터 1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날의 문화유산탐사기'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등 출간
- 2000년 인터넷기업협회 선정 '올해의 인터넷 연예인상' 수상

우리 대중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화로 인한 개성 부족이다. 이는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들이 생각의 틀을 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려 하지 않고 안정성 있는 문화에 안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그맨 겸 연출자인 전유성 씨는 '암모암모 앙상블' '개그콘서트' 등을 기획하면서 획일화된 대중문화에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사과대 시사토론반의 백진선(사과대1) 양, 성민기(사과대1) 군과 함께 전유성 씨를 만나 대중문화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백진선 (사과대1)

백진선(이하 백) = 1969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유성(이하 전) =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도태 되기 때문이죠. 나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라진 이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부 사람만 현재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민기(이하 성) = 후배 개그맨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전 = 선배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극이나 영화를 하려면 대학에 가서 배우면 되고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요. 그러나 개그맨이 되려면 갈 곳이 없고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부터라도 선배된 도리로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 코미디계가 다양해져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

요즘의 문화계는 상업성 위주의 대중문화로 점철됐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산돼 다시 거대한 자본을 만들어내는 산업적 문화만이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적 소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보이지 않게 우리 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문화인과 본교 학생들이 만나 우리 문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 “튀어야 인정받는 사회가 대중문화 발전의 주춧돌”

지오.

백 = 그것은 비단 코미디계 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계 전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 = 우리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대중매체가 한정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가지 유쾌한 따라간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케이블 등 방송매체가 다양해 획일성이 비교적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케이블 방송 등의 매체가 다양해진다면 문화가 지금보다는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전 = 우리 대중매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천여년 동안 내려온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가 있잖아요. 사회분위기 자체가 눈에 띄면 안되는 방향으로 형성돼 있는게 문제예요. 이 같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대중매체가 다양해져도 획일화된 문화는 여전히 될 것이 분명해요.

성 = 대중매체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의식하지 않고 대중매체를 보면 획일화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 = 요즘은 매체를 접할 때 의식 없이 보면 안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개그콘서트'를 보면 최근 웃음 포인트가 패러디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 없이 매체를 접하는 사람이 패러디를 보여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의식하고 매체를 접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예요.

백 = '암모암모 앙상블'을 통해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클래식공연을 좀 더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는 공연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회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시도였나요?

전 =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성악가들의 연기와, 재치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은 공연을 기획해 독특한 형식의 공연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연 장르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클래식이 조금이나마 대중화된 것을 보면 우리 대중문화의 변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 = 대중예술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요계를 예로 들면 김건모, 서태지 같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대중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의 댄스 그룹처럼 대중의 기호에 맞춰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중에 무엇이 옳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댄스그룹은 음악성이 부족하다, 상업성이 강하다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노력이 부족한 편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만약 이들이 대중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 대부분이 그렇듯이 활동기간이 1~2년 밖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매년 음반 표지만 바뀔 뿐 같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지요.

성 = 우리나라 음악·영화계 등 대중문화 전반이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또한 대중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 = 예술성 있는 영화가 있으면 상업적인 영화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흔히 저 예산 영화라면 예술성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많은데 이 같은 착각은 그 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 =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문화인으로 손꼽히는 데 실제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 = 새로운 시도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의 대부분을 시집을 보며 떠올리고 있어요.

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시인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사람과는 사고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세요.(웃음)



성민기 (사과대1)

성 = 우리 대중문화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 = 대중문화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자라고 있는 학생들, 성인들까지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중간은 간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수용자인 일반 대중이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흔히 공금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연예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튀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우리 대중문화의 발전도 이뤄질 것입니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 문화단신

### 2003 제7회 인권영화제

'2003 제7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 및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작품 13편과 해외작품 20편이 상영되는 이번 행사는 미국의 전쟁범죄를 풍자한 '감춰진 전쟁'을 통해 이라크 난민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방이 없어요'라는 작품을 통해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 영화제는 상업주의 영화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있는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매체비평

뮤직비디오 편

빅마마 'Break Away'

"가짜 립싱크 가수 등장 외모지상주의에 일침"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빅마마의 'Break Away' 뮤직비디오.

예쁘고 날씬한 4명의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예쁘게 때론 색사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광하는 많은 팬들. 그러나 그 무대 뒤에는 종종

하고 못생긴 여성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화면의 답은 못생기고 풍뎡한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고, 예쁘고 날씬한 여성들은 립싱크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빅마마의 뮤직비디오 내용이다. 빅마마의 뮤직비디오는 현재 대한민국의 단면을 그대로 표집하고 있다. 외모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 성형과 다이어트를 통해 예뻐지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무한질주를 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 미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해 왔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거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상업화와 미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미는 이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뷰티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규모가 화장품과 미용성형, 다이어트시장만으로도 2001년 기준 7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이런 시장형성으로 인해 획일화된 미를 추구하도록 보이지 않게 강요받고 있다. 흔히 주고받는 인사가 그 사회의 흐름을 읽는다고 했다.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에 서로 묻던 '식사하셨습니까?'에서 사회가 불안하던 시절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그리고 이제는 '예뻐졌네' '살 좀 빠졌나봐' '살 좀 빼라' 등으로 외모의 변화를 인사처럼 건네는 사회로 변해버렸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화장품과피쳐림 외모가 한 인간의 판단 기준이 되게 만들어 버린 사회가치관과, 여성은 예뻐야하고 날씬해야한다는

한국남성들의 집요한 요구, 그리고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애정결함이 합해진 결과라고 보면 외모지상주의를 한국 전체에 만연하게 만든 외모지상주의의 일등 공신인 미디어의 부작용이라고 본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한국여성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사회가치관에 흔들려야 하는가. 이런 대응의 작은 움직임이 얼마 전 끝마친 '안티 미스코리아'라고 본다. '안티 미스코리아'에 대한 시비성 비난이 있지만 '안티 미스코리아'가 외모지상주의 천국인 한국사회에 보여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 획일화된 외모로 평가받는 한국사회에서 각자의 개성과 다양함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 잊고 있던 개인의 개성과 외모가 아닌 다양함에 대한 인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마마의 뮤직비디오는 그런 의미에서 연예계에서부터 외모지상주의에 침투(?)한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바비인형을 권하고 있다. 날씬하다기보다 마른 체형에 팔등신이 아닌 10등신의 바비인형처럼 비정상적인 체형과 획일화된 얼굴을 권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여성의 가치가 진정 외모만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외모지상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남성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임을 밝혀둔다. 강현희 여성민주회 간사

학과실 꾸미기 대회 우리 학과실에 놀러오세요!



학과실은 소속 학생들에게 유일한 학내 전용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과실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처럼 학과실이 일반 학생들과 괴리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이로 인해 학과에 출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학과실은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앉을 곳이 없다"는 한 학생의 불만처럼 학과실의 불편함도 문제다. 실제로 많은 학과실을 둘러보니 정리되지 않은 짐이 곳곳에 쌓여 있고 바닥에는 담배꽂자와 껌이 붙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책과 강통이 캐비닛과 의자에 쌓인 지는 오래다. 공간 활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넓고 좁음의 문제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은 거침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과실은 '술마시고 노는' 공간이 아닌 소속 학생 전체의 학습공간이자 문화공간이다. 특히 실습실이 마련되지 않은 학과 학생일 경우 학과실 이용이 절박하다. 때문에 학과실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과실 이용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생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용하고 싶은' 학과실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학과실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이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사는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와 공동으로 '학과실 꾸미기 대회'를 개최했다. 총 17개의 학과가 참여했으며 공간활용과 미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심사결과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대체적으로 청결상태는 호전되었다. 이번 행사는 변화 정도보다 각 학과실의 주체에게 학과실 청결 필요성과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열린 학과실'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들은 각 학과와 소속 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Before Afte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위 경찰행정학과



학과실을 꾸미기 전에는 한쪽 구석에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어 흡사 창고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과실 중간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공간이 좁아 보이며 책상과 의자들이 무질서하게 어지러져 있었다. 그러나 학과실 꾸미기가 끝난 후에는 블라인더에 있는 경찰마크를 통해 경찰행정학과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벽에 벽돌무늬 벽지

를 발라서 독특한 분위기가 나게 했으며 책상을 설치해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책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한 상장과 트로피 또한 눈에 띄게 있는 듯한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행정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과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위 산업시스템공학부



학과실 꾸미기를 하기 전에는 과실 중간에 책상이 놓인 채로 사방에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어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했으며 많은 물건들이 어지러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학과실을 꾸민 후에는 기존에 있던 의자 중 일부와 어지럽게 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 전제적으로 공간활용이 넓어졌다. 가장 큰 특징은 바닥장판이 깔렸다. "지취방에 온 듯한 느낌

이 들게 하고 싶었다"는 석인철(정산대 1) 학생회장의 말과 같이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살렸다. 이를 통해 타 학과실과는 다르게 친숙한 분위기를 지니도록 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신발장도 눈에 띈다. 또한 벽에 스티커를 둘러 학과실 이미지를 신선하게 했으며 새로 설치한 게시판은 학과의 중요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위 중어중문학과



학과실을 꾸미기 이전에는 책상과 의자 등이 많은 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들이 쌓여 있어 어지럽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그러나 대회 이후 회의책상과 컴퓨터 등 꼭 필요한 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납해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준다. 또한 중국 지도를 한쪽 벽에 설치해 이번 학과실 꾸미기의 중요한 심사부분

중 하나인 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실이 타 학과에 비해 좁은 편이기 때문에 넓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동우(중문3) 학생회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집기 배치에 있어서도 공간활용의 최대화에 신경을 기울였다. 정리=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메아리

사포와 대통령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 죄수의 딸 흥련입니다....." 계모가 꾸민 흥련에게 빠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화, 누이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고 뒤따라 연못에 빠진 흥련. 이들은 매일 밤 고을 사포의 앞에 나타나 억울함을 토로하려 한다. 하지만 사포는 이야기를 듣기 전, 소리없이 나타난 그들의 걸 모습에 놀라 죽음에 이른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장화, 흥련의 고을인 철산읍은

점차 쇠퇴해간다. 고전 소설 중 하나인 '장화홍련'의 이야기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위기관리특별법' 도입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정부가 개입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원인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국가 주요 기간산

업의 노동조합이 파업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알려지자 각 사회 단체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법이 제정될 경우 파업 시 대책 인력이나 장비를 즉각 도입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복귀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사건에 봉쇄할 소지가 있

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은 정부가 얼마 전 화물연대 파업을 겪으며 진통을 앓은 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나온 어긋난 방향의 대책이다. 장화홍련전은 후에 강단 있는 사포가 마을에 부임해 자재의 억울함을 듣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이 철산읍과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 김진성 기획·사진부장 yearam@dongguk.edu

동아리·소모임 탐방 - 테니스 동아리 'DUTC'

# 학내 무관심 힘찬 스매시로 날려버려!

## 코트 부재로 학생들과의 접촉기회 줄어 ... 학내 행사 만들기에 주력



사설 코트에서 연습중인 DUTC 회원들.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또 한번 세계적인 입에 'Korea'를 오르내리게 한 사람이 있다. 비 인기 종목의 실용을 딛고 세계적인 무대에 선 테니스 선수 이형택이 바로 그다. 우리 나라에 이형택 선수가 있다면 우리 학교에는 DUTC(Dongguk University Tennis Club)회원들이 있다. 이형택 선수가 테니스로 세계에 우리 나라 이름을 알리듯 DUTC 또한 우리 학교 이름을 외부에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DUTC는 1971년 테니스를 통해 서로간

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경기에서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 창설된 이래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하루 더 나은 실력 향상을 위해 매주 선·후배가 아우러져 연습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통했을까. 지난 인하대 주최 오픈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매년 열리는 대학 연맹전에서도 해마다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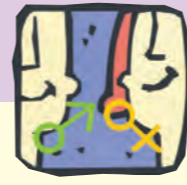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열심히 대회를 위해 연습해야 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부담감이 있다. 2001년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 테니스 코트가 없어지면서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사설 코트를 빌려 연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연습 시간을 많이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학내 경기를 주최할 수 없는 고충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로 학내 학생들과의 접촉 기

회 없이 지내면서 학생들에게서 존재감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DUTC 회원들은 요즘 학내 학생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5일간 축제 맞이 '총장배 테니스 대회'를 연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회장 이정형(전자공학2) 군은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학내 행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테니스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내에 코트장이 마련되어 본교 이름을 건 '동대 오픈전'을 개최하는 것이 꿈이에요"라고 하는 한 회원의 말처럼 그들에게 하루 빨리 연습공간이 마련되어 연습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로 보인다. 오늘도 힘차게 라켓을 휘두르는 그들의 열정이 더욱 큰 코트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은)

bob83@dongguk.edu



# 솔직한 성 올바른 성

## 성관계 시 의견조정 과정 필요

"성관계를 할 때 분명히 질의 사정을 했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성관계를 갖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친밀감을 나누는 수단으로, 어떤 사람은 서로의 소통을 보다 잘 하기 위해, 혹은 임신을 목적으로, 혹은 단지 육체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떤 성관계든 임신이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갖는 성관계는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성병'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안전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지식을 아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다. 피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성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의견 조정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친밀감이 형성되어 서로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에

대해 좀더 솔직하고 분명히 말하고 의견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또는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게 되는 성관계라면 재고해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감정과 판단을 파트너가 충분히 존중해 주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피임의 방법에는 콘돔, 먹는 피임약, 질 좌약식 살정제, 자궁내 장치(루프), 난관불임술, 정관불임술이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의 사정을 피임법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지만 질의 사정은 결코 성병이나 임신을 예방할 수 없다.

피임법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콘돔 사용이다. 인위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장치삽입, 경구용 피임약 등의 피임법들은 인체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콘돔을 준비

하거나 콘돔을 하라는 요구를 못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 혹은 '남자들이 날 어떻게 볼까' 등의 이유로 먼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남자들의 경우는 '느낌이 안 좋다' '분위기를 깰까봐' 등의 이유로 피임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임에 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관계 시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 지식과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성은 속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본능일 뿐이다. 또한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며 누구에게 속하는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김은혜  
여학생실 상담원

###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면 참조.
- 이탈리아의 작가 C.콜로디의 동화 주인공으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
  - 잔기를 일으킨, 종류로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이 있음.
  - 아무런 물질이 없는 방.
  - 공기상의 작은 물질에도 예민한 원자를 000에 가부 있다.
  - 산업체와 학교의 연계해 활동하는 것을 00협동이라 함.
  - 식용으로 하는 열매로 과실이이라고도 함. 사과, 배 등이 여기에 속함.
  - 자기 스스로 거드름을 피우며 만족해함.
  -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 밥짓는 일도 칭함. 00금지.

### 1359호 정답

보	드	게	임	화	석
월	토	수	요		
선	두	마	일	출	
거	예	술	대	발	
	이	의	동	경	
신	라	국	제	학	
크				골	벌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6월 2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당첨자

강건욱(인철2)

편집자

### 가로열쇠

- 불품 없이 뚱뚱하게 큰 코.
- Peace와 Festival의 합성어로 2003년 대통령 기치는 우리 0000.
- 예술대 영화영상학과 소모임. 사회적 문제를 필름을 통해 표현.
- 갑각류에 함유되어 있는 키틴을 인체에 흡수가 쉽도록 가공한 새로운 물질로 계나 새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
- 학과 학생회실의 출입말. 이번 대통령 기간동안 본사와 총학생회의 주최로 000 쿠미기 대회가 진행되기도 함.
- 일을 함. 4학년 재학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 반) 실업
- 간척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현재 중단을 촉구하는 3보1배 순례가 진행중. 이번호 사회면 참조.

### 세로열쇠

- 독일의 공산주의자이자 혁명가. 주요저서로는 자본론.
- 자치공동체를 뜻하는 '코뮌'과 비엔날레의 합성어. 이번호 학술

### 새 소식

#### 세일즈맨의 죽음



공영기획 '이다'가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오는 6월 1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문의 02-762-0010

#### 파페포포 메모리즈



일상에서 겪는 상처와 기쁨을 사랑, 시간, 의미, 추억 등의 소재로 나누어 표현한 만화이다.

심승현 글·그림/ 홍익출판사/ 7천 500원.

####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



문학평론가 조정한 씨의 세 번째 저서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2003년 초 촛불시위까지 전개된 국내외의 시사적 문제를 조명한다.

조정한 저/ 갈무리/ 1만 2천원

#### 에센셜 드러커 : 이재규 교수의 피터 드러커 특강



국내 소개된 드러커 저작물의 대부분을 번역한 이재규 교수가 드러커 저작물의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재규 저/ 한국경제신문사/ 9천 900원.

### 독자 광고

동국대학교 스키부가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 스키부 매력 포인트

하하! 눈부신 설원에서 펼쳐지는 스피디한 레저 스포츠 스키를 저렵하고 안전하게 배우기

둘! 계절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행사로 부원간 결속 다지기

전혜연 011-9998-7160